

сахалиннүү саһуиэтиһинун <hr/>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p>САХАЛИНСКАЯ ПЕЧАТНИЦА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2017년 1월 27일(금) (음력 12월 30일) Пятница 27 января 2017 г. № 3(11672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1월 28일은 음력설이다. 작년 음력설 기념행사 사진.

(이에식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사할린국립대, 대학생의 날 기념

1월 25일 러시아에서 대학생의 날을 기념했다. 이날 사할린국립대에서도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야코는 대학생들에게 축하하며 "사할린주에는 청년 전문가들, 이 지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들이 이곳에 가정을 꾸려 아이들을 낳고 교육시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전 러시아에서 가장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애쓰고 있다고 했다.

전례대로 대학생의 날에 우수 학생, 여러 콩쿠르 우승자,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시상하고 이날 코제야코 지사는 가장 우수한 학생을 시상했다.

제20회 체호브 독서 컨퍼런스 준비 중

1월 30-3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섬> 안톤 체호브의 책 문화미술박물관에서 제 20회 '체호브 독서' 지역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 학술행사에는 4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그중 사할린 전문가 말고도 벨리호브, 따간로그, 크림 체호브 박물관들의 직원들이 참가한다. 훗카이도 문학박물관 전문가들도 초대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학교 교사들이 많은 신청을 하여 그들을 위한 별도의 섹션도 준비되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체호브 탄생일에 해마다 개최되는 <체호브 독서> 컨퍼런스는 이제 <사할린 섬> 책 문화예술박물관의 명프로그램이 되었다.

<사할린에 무궁화> 전시 개최

1월 27일(금) 오후 4시 사할린주향토 박물관에서 <사할린에 무궁화> 전람회가 열린다. 음력설을 앞두고 열리는 이 전람회는 사할린주 창설 70주년을 기념하여 사할린인들의 민족과 역사를 알리는 장이라고 주최 측이 밝혔다. 전시는 박물관 측 한국문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전람회에는 향토박물관과 주미술박물관의 소장품과 주역사문서보관소의 문서와 사진이 출품되어 2월 27일까지 한 달간 전시하는 동안 관람객들은 한민족의 전통, 풍습, 명절에 대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볼 수 있고, 전통 놀이에도 참가하고, 강의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제2회 동양언어축제 열려

1월 27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 제9동양언어문화교과 음력설을 앞두고 제2회 동양언어축제를 개최한다. 김 나탈리아 교감선생에 따르면 축제에는 9학교 학생 외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여러 학교 학생들, 그리고 처음으로 지방 학교(홈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학생들이 참가한다고 한다. 학생들의 언어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경시대회가 펼쳐지고, 공예교실과 공연도 열 예정이라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영화제 열려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일본영화제가 진행된다. 3일간 일본 영화 4편이 상영되는데 주로 현대 일본 여성에 관한 영화라고 알려졌다. 입장은 무료이고 입장권은 영화상영 전날 또는 바로 상영 전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할린주, 일본과 함께 쿠릴 개발

지난 25일(수)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야코는 일본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 아이키 토시히로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만났다.

일본 외교관을 환영한 사할린주지사는 쿠릴섬에서의 공동 활동, 사할린주 내에서 생선 가공, 가두리 양식, 도로 제반시설 구축, 주택건설과 의료센터 창설에 일본 회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들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날 주지사는 사할린주와 일본 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것이 양 지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표명했다. 그는 사할린주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정상회의 때의 협력방안을 지지한다며 양 지역 간 교통수단 개발, 관광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이키 부국장은 이날 사할린주가 훗카이도와 협력 강화하는 데 대해 주지사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고 지리적 요건을 가만히 상호공동이익 사업에 대한 사할린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일본 외교관은 동력과 수산업에서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사할린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사할린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진심을 담아 따뜻한 마음으로 2017 음력설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번창하십시오. 올 한해 귀택에 모든 면에서 부요함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시작한 모든 것을 계속 지속시켜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단결, 자부심, 능력과 고향에 대한 애정은 새로운 성취를 이루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정유년을 맞이하여 사할린주민과 쿠릴주민에게 내일에 대한 확신과 가족의 따뜻함과 행운,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과의 상호이해와 사랑도 넘치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삶은 집들에 대한 정비를 비롯하여 국내 산재한 일들의 순조로운 마무리 등 많은 일들이 우리 자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기의 책임을 지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라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을 표하면서

박 웨니아민 아르카지예위츠

<야블로코> 정당 지역부 부지사장이며 코르사코브시의회 의원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Примите самые искренние, самые теплые поздравления в преддверии наступающего 2017 года по восточному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Хочу пожелать Вам счастья, здоровья и процветания. Пусть богатство наполнит ваш дом. Уверен, мы сможем продолжить все начинания. Наша сплоченность,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воих силах, любовь к родной земле станут залогом новых достижений. Я очень хотел бы, чтобы наступающий год принёс каждому Сахалинцу и курильчанину, уверенность в завтрашнем дне, семейное тепло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и любовь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Наша жизнь в Новом году,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зависит от нас самих – начиная от порядка в домах и заканчивая благополучием во всей стране. Главное - не бояться брать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свое будущее.

С уважением, **Пак Вениамин Аркадьевич**,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ЯБЛОКО",
 депутат Собран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1세 2차팀(30명), 올 5월에 한국에서 무료 진료

이미 보도된 바와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이 고국에서 진료를 받을 첫 사할린동포 1세대들과 1월 14일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개최하는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 진료사업>으로 이번에 어르신 22명이 한국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고 있다.

4일간 사할린 어르신들과 함께 한 박 회장에 따르면 할머니들의 편리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한 층에 입원실과 검사실을 마련해 놓고 간병을 위해 함께 간병보호자 16명을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게 하고 각 1세대 어르신들에게 주치의의 정하는 등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박 회장은 18일 사할린으로 귀국할 당시에 이미 몇 분은 안과 수술을 받았고 몇몇 분은 시술과 진료, 한 할머니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할린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에 인요한 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이 직접 참가하여 따뜻이 할머니들을 환영해주었다. 인 이사장은 '이번 초청진료를 계기로 향후 가급적 많은 한인 1세대 동포 분들이 의료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라고 박 회장이 전했다.

박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이 진료받는 어르신 22명 각 분과 인사를 나누고 병원 측에서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며 "이번 진료는 사할린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새해선물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박순옥 회장은 앞으로 진료차 가는 각 1세가 보호자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어르신을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꼭 가족(자녀 또는 며느리) 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할린 1세 2차 팀(30명)이 5월에 한국에서 진료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박순옥 회장은 강조하고 3차 팀은 9월에 갈 수 있도록 사할린 측과 한국 측이 협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사할린 잔류 1세대 초청진료 사업>으로 한국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동포들의 숙박식비와 항공료, 진료비 등, 그리고 보호자들의 숙박 및 식비, 항공료 포함 모든 비용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부담하고 있다는 건 상기할 만하다.

재단 측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사할린한인 1세들에 대한 진료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배순신기자)

KIN대표단, 사할린 어르신들과의 따뜻한 만남으로 추억을 채워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전달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KIN(지구촌동포연대) 방문단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을 전달하기 위해 사할린 여러 지방을 다녀갔다. 사할린에서 방문단과 함께 공항 마중·배웅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김흥지 주한인회 부회장이 함께 움직였다.



21일(토) 한국 방문단을 따라 이에식 본사 사진기자도 동행했다. 이날 방문단은 돌린스구역 비코브 부락 한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탄광까지 갔었고 오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지에 위치한 사할린한인회생자 합동 추모비를 찾았다.

그 전 날에 들었던 한국 방문단은 코르사코브와 마카로브를 방문하여 지방한인회 관계자들과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22일에는 우글레고르스크구역으로 떠났다. 가는 길에 처음 토마리구역 크라스노고르스크에 들려 한인회 관계자 등과도 만났다. 이 방문에 한국 손님들과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라이온스클럽 관계자 등도 동행했다.

킨 대표단은 유즈노사할린스크 근교 지방을 해마다 방문하지만 우글레고르스크 방문은 3년 만이었다. 최상구 킨 사무국장도 김지연 사진작가는 3년 전에 이곳을 다녀갔지만 나머지 한국 방문단에게는 처음 가는 곳이었다.

우글레고르스크 구역에 계시는 여러 분은 바로 최상구 킨 사무국장이 펴낸 책<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 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의 주인공들이다. 이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최 사무국장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웠다. "어르신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한인회를 통해 전달한 제 책을 읽고 계신다고 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보쉬냐코워에 계시는 조영제 어르신은 벌써 3번째 읽고 계신다고... 새고려신문에 나온 것(최상구 저자의 <사할린>. -기자주)도 다스크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라고 우글레고르스크구역에서 막 돌아온 최상구 사무국장이 말했다.

사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거의 300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한국 손님들은 자주 찾아가지 않는다. 한번 가보고 다시 찾아가는 손님은 더욱더 귀한 손님이다. 해마다 킨 관계자들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은 사할린에 와서도 그 지방까지 오지 못한 데에 대해 섭섭함도 표명했다.

최 사무국장에 따르면 염창월 할머니 댁에서 김영순, 안복순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먹고 노래부르면서 춤도 추며, 즐겁고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이런 따뜻한 만남을 위해 지구촌동포연대가 해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을 제작하지 않는가 싶다.

방문단은 이번에 달력뿐만 아니라 음력설을 앞두고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도 지방한인회에 전달했다.

올해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은 새고려신문사 이에식기자의 1990-2000년대 흑백사진의 어르신들의 모습으로 구성되었다.

사할린한인들과의 따뜻한 만남



에 대한 추억을 가진 한국 방문단은 25일(수) 사할린을 떠났다.

(배순신기자) (사진: 이에식사진기자, 지구촌동포연대 제공)

이모저모

사할린인형극장, 엄마의 모습 소개 제안

사할린인형극장이 주 내 학교의 고교생들에게 집에서, 직장에서, 휴식 속에 있는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을 소개하는 사진과 글짓기 콩쿠르에 참가해 주길 제안했다고 극장 홍보실은 전했다.

콩쿠르는 <기적의 날> 대규모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사할린 에너지>회사의 후원과 사회지도부재단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사진 콩쿠르의 주제는 <내가 보는 엄마>, <엄마는 스포츠를 좋아해>, <가족 안에서>, <엄마를 돕기>, <엄마한테 아이들이 많다>, <엄마는 직장에서> 등으로 최종 결선에서 우수 사진 20점을 선정하게 된다.

글짓기 부문에서 <엄마에게 쓰는 글>이란 주제와 더불어 예를 들면, <내가 엄마가 되면>이란 자유로운 주제로 엄마로서의 기쁨에 대한 글을 접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종 결선에서는 우수 작품 10작품을 선정한다.

콩쿠르의 최종 우승자들은 2월 20일 전까지 결정되며 우수한 작품들을 기반으로 사할린인형극장에서는 3월경에 사진전과 글짓기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종 우승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3월 1일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라 전했다.

작품 접수의 주소로는 콤무니스찌체스키, 28a에서 받는다.

메일: zavlit_puppet@mail.ru 전화는 45-80-76 (문학회극부 담당자이며 프로젝트 큐레이터 올가 셀레즈노바)

Сахалинский театр кукол предлагает представить образ мамы

Сахалинский театр кукол предлагает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ам областных школ представить образ любимой мамы — дома, на работе, отдыхе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ах фотографий и сочинени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театра.

Конкурсы являются частью большого проекта "Чудо-день" и проводятся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в рамках работы фонда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Энергия".

Темы фотоконкурса "Я смотрю на маму": "Моя мама любит спорт", "В кругу семьи", "Я помогаю маме", "Нас у мамы много", "Моя мама на работе". В финал выйдут 20 лучших фотографий.

Темы конкурса сочинений "Напишу о маме" такие же плюс свободная тема о радости материнства, например, "Когда я буду мамой". В финал выйдут 10 лучших сочинений.

Финалисты конкурсов определяются до 20 февраля. Их работы станут основой экспозиции фотовыставки и выставки сочинений, которые открою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атре кукол к марту.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будут озвучены 1 марта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по адрес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28а.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zavlit_puppet@mail.ru. Телефон: 45-80-76 — куратор проекта, руководитель литературно-драматургической части Ольга Селезнева.

(8면에 계속)

음력설을 앞두고

유아교실 아동들의 즐거운 발표회



한국어 맞추기 게임 등, 특히 이날 학교 입학 앞둔 오 제니스(6세)와 김유나(5세)와 클림코와 비올라(5세)가 많은 점수를 받아 선생님과 어른들의 칭찬을 받았다.

밝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학예발표회는 학부모들이 준비한 상품과 선물을 수여하고 이어지는 시한인회와 주여성회가 차려놓은 다과회로 막을 내렸다.

2008년부터 한인문화센터에서 유아교실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소망>협력회 김춘경 회장은 작년년부터 여러 사정으로 시한인회 건물에서 수업을

지난 21일(토) 음력설을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건물에서 <소망>아동창작발표협력회가 개설한 유아교실 학생들의 학예발표회가 있었다.

작년 9월부터 토요일마다 유아교실 수업을 다니는 5-7세의 10명의 유아들은 이날 노인정 할머니와 학부모, 시한인회와 주여성회 관계자들을 모시고 울동하면서 설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한국어실력도 발휘했다.

이에 앞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중환 회장은 유아들과 어르신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했다. 유아들은 민족통일대구청년협의회(회장 하태균)가 선사한 다채로운 한복을 입고 봄날 꽃처럼 예쁜 모습으로 한국말로 인사하며 큰 절을 올려 이날 그곳에 모인 어르신들의 마음을 화끈하게 녹인 듯했다.

이날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쿡쿠르도 있었다. 노래자랑, 채소, 과일, 동물 등에 대한



2017년 1월21일

하게 되었다고 표명했다. 현재 김 회장은 혼자 아이들에게 한국어 수업, 종이접기, 노래, 풍물 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춤도 가르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본사기자)

(사진: <소망>아동협력회 제공)

가가린라이온스클럽, 지방 1세대포 지원

작년 5월에 사할린에서 창설된 러시아지구 123 가가린라이온스클럽(회장 천 알렉세이, 본명 천영근)은 음력설을 앞두고 크라스노고르스크, 샤호츠크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1세 동포들에게 쌀과 물품 등을 지원했다.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과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전 달식에 나선 지구촌동포연대



대표단과 라이온스클럽 천영근 회장, 안수학 부회장, 강승

회 이사는 함께 지방을 순회했다.

"어르신들과 만나 선물을 전달하고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하다"며 천회장이 소감을 밝혔다.

자원봉사정신으로 활동하는 라이온스클럽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고아들과 양로원의 노인들을 계속 돕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지원 행사는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본사기자)

한국손님

목진호 사물놀이 강사, 7년 만에 사할린 방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견강사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활동했던 목진호 선생이 지난 24일(화) 사할린을 방문했다. 사할린동포들의 한민족문화교육, 특히 사물놀이 보급에 애를 많이 쓴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만 아니라 한인들이 집중해 거주하는 지방들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목 선생은 사할린예술콜레즈에 한민족 예술과를 열고 한국문화 전문가들을 양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여러 사정으로 이 계획은 이루지



못했다. 사할린 동포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진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예술콜레즈 한민족문화예술과 개설 문제를 파악할 생각이다. 한편 그동안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따낸 목진호 예술인은 현재 대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특별히 사할린 실태 파악에

대한 김덕수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의 격려와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그는 사할린주한인회,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새고려신문사, 주문화부, 한인문화센터,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등 관계자와 만나 한민족문화 보급에 대한 조사를 하는 중이다.

음력설 전에 사할린을 방문한 목진호 선생은 "10년전에도 음력설을 앞두고 처음 사할린을 찾아왔는데 이번에 다시 왔더니 감회가 새롭다"는 소감을 전했다.

(배순신기자)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이처럼 귀환운동에 탄력이 붙자 사할린 한인이 일본에서 가족과 재회하거나 일시적으로나마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증가했고, 이에 한일 정부가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방안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1989년 6월 소송은 취하되었다. 이 소송을 통해 강제 동원과 귀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14년간 사할린 한인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증언과 자료를 채취하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일본 정부를 압박, 민간 차원의 운동을 정치 차원으로 끌어올린 점은 큰 성과로 기록된다.

한 예로 1987년 7월 17일, 일본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문제 의원간담회(이하 의원간담회/ 일본 국회의원 155명 참여)>가 발족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일소원탁회의의 일본 측 의장 하라 봄베에가 회장을, 일본 사회당의 이가라시 고조가 사무국장을 맡았는데, 하라 봄베에는 소련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고 이가라시는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었다.

<의원간담회>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에 서신을 발송하고 모스크바를 방문해 관련 부서의 관료들과 회담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 소련적십자사를 통한 한인의 생사 여부 확인, 일본에서의 가족 재회 확대를 위한 소련적십자사와 일본 적십자사 간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는 사할린 귀환운동이 마침내 민간 차원을 넘어 각국의 적십자사와 정부 간의 외교 의제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1988년 4월, 일본 외상은 사할린에 잔류한 한인에 대해 일본이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88년, 사할린 잔류 한인 문제 해결을 내걸고 일본 국회의원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소련에 첫 방문을 하게 된다. 이 방문을 통해 일본 측 국회의원들은 사할린 한인의 가족 재회를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직접 이루어지게 하자는 방안을 제기했고, 아울러 이 사안을 일본 정부의 책임 하에 한일 양국 적십자사가 다루게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게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소련 측은 한인들이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일시 방문하는 것은 묵인했지만, 한국으로 영주귀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페레스트로이카와 서울올림픽, 변화의 바람이 불다

일본 정치계가 사할린 한인 귀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과 때를 같이해, 소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그 영향이 소련 대륙의 오지라 할 만한 사할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과거 소련 정부와 사할린 주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만 고려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는 태도가 좀 더 유연해졌다고 할까.

그 결과 1985년 이후로는 사할린 한인이 일본에서 가족을 만나는데 사리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그간 간헐적으로 고향의 독신자에 한해서만 영주귀국을 허가했다면, 1989년에 들어서는 엄주정 씨 일가(딸 부부, 아들 부부, 손자 4명) 전원에 대해 영주귀국을 허가하는 등,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한편 1988년 한국에서 서울올림픽이 열리고 거기에 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을 잘 알지 못했던 소련인과 사할린인 사이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점도 큰 변화라 할 만하다. 이것은 또한 사할린 한인 스스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서울올림픽을 매개로 동구권 국가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1990년 소련과도 수교를 이루는 데 성공한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북방외교'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민간 차원의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하바롭스크까지 가는 정기 항공노선이 개설된 것은 그 직접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사할린 한인들은 그동안 말하기도 조심스러웠던 '귀향'에 대해 직접 발설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1989년과 1990년에 각각 <사할린주 이산가족회>와 <사할린주 한인노인회>를 결성하여 한인의 모국 방문과 영주귀국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달라진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비자민계 일본 정부의 등장이 가져다준 결실

한국에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처음 사할린을 방문해 한인의 영주귀국을 논한 사람은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다. 그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점차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논의가 활발해지자, 1989년 7월 한일 양국 적십자사로 구성된 <사할린 거주 한국인 지원 공동사업체>가 만들어졌다. 모국 방문(일시방문과 영주귀국)과 관련한 전체 업무를 전담한 이 공동사업체는, 1989년 12월 한인 23명의 일본 경유를 통한 한국 방문을 추진한 것에 이어서 전세기를 동원한 일시귀국 사업도 두 번 진행했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Итак, в Корее сменилась династия – Корё закончилось и воцарилась вана из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Первые ваны долго не могли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в стране и в собственном доме – сын свергал отца, брат брата, а три первых вана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желанию отреклись от престола. Этот первый период хаоса закончился с воцарением сына Ли Банвона – вана Седжона, которого до сих пор считают самым выдающимся из всех корейских монархов.

Седжон родился в 1397 г. Он был третьим сыном вана Тхэджона. С раннего детства он отличался умом и выдающимися способностями, так что в возрасте 12 лет ему был дарован титул Великого принца Чхуннёна (Принц верности и спокойствия). Старшие братья Седжона не стали ванами – первый предпочитал охоту и развлечения и был удален отцом от двора, а второй – ушел в монастырь. Тхэджон перед отречением зачисти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 недовольных и в августе 1418 г. передал престол 22-летнему Седжону. Тхэджон видел в сыне все задатки необходимые монарху – образованность, здравый ум, решительность. Он хотел, чтобы его младший сын принес стране спокойствие и мир, поскольку самому ему пришлось быть в свое время безжалостным в борьбе за престол.

Седжон оценивается в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как выдающийся правитель, поскольку в его правление был введен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Однако Седжон отличился не только своей ролью в подъеме культуры и науки, но и другими славными делами. Умный и энергичный правитель, сочетавший любознательность с трезвым расчетом, мастер компромисса, талантливый стратег и дипломат оказал влияние на самые разные стороны корейской жизни.

В област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 именем Седжона связано последнее значительное изменение границ Кореи.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авно волновал вопрос о присоединении чжурчжэньских земель к территории Чосона. Чжурчжэни не сразу вошли в состав Чосона. Сначала чжурчжэней завоевала в 1234 г. монгольская династия Юань, но во время правления династии Мин чжурчжэни вышли из состава империи и стали проживать отдельными племенами и княжествами в районе северо-востока Китая. Чосону удалось присоединить монгольское наместничество Ссансон в 1356 г., а чжурчжэней вытеснить к реке Туманган, а затем и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 страны.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складывались под влиянием дву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которые сильно повлияли на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корейцев и чжурчжэней. Первой причиной являлось то, что чжурчжэни нападали на корейские земли. А другой было то, что корейцы придерживались конфуцианской этики, считали чжурчжэней «варварами», требовали, чтобы те признали сюзеренитет Кореи и поставляли в страну ежегодную дань.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присоединения чжурчжэньских земель Седжон выбрал многовекторную политику. В 1406 г. неподалёку от поселения Кёнвон и Кёнсон построили специальные рынки, служившие для торговли между корейцами и чжурчжэнями (чжурчжэни привозили для торговли меха и лошадей, а закупали ткан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В 1432 г. на южном берегу Тумангана построили крепость Нёнбук. В 1434 г. построили «шесть крепостей» — юкчин, состоящих из крепостей Чонсон (вместо Нёнбук), Онсон, Кёнвон, Кёнхын, Пурён, Хверён. Расположение крепостей обеспечивало защиту северо-восточных границ, также с них можно было выдвигаться в походы на врагов. С 1435 г. стали заселять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е земли Чосона жителями южных провинций. Переселение провели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переселенцам давали землю, оказывали помощь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домов. Очень взвешенную политику вел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чжурчжэньским вождям – привлекали раздачами почетных чинов и предметов роскоши, торговыми привилегиями. В итоге этот край постепенно закреплялся за Чосоном.

Други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успехом Седжона стала разработка модели отношений с Китаем, которая просуществовала до конца XIX в. 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а сочетание фактическ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с формальным признанием главенства кита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Важной проблемо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которую Седжону удалось решить, была проблема японских пиратов. Эти разбойники с о. Цусима уже давно грабили морские селения Кореи, разоряли хозяйства и структуру побережья, нарушали морское сообщение с Китаем и Японией. При этом пираты пользовались поддержкой как японских (например, правителей Цусимы), так и корейских могущественных кланов.

Наиболее опустошительным был набег в 1419 г. Японские пираты на 50 кораблях высадились в провинции Чхунхон в уезде Пиин. Получив отпор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йских сухопутных сил, японцы попытались продолжить свой грабительский рейд севернее. Тогда Седжон по совету отца организовал Восточную экспедицию против пиратских гнезд на о. Цусима. Флот в составе 227 кораблей и 17 тыс. солдат выступил к пиратскому острову и потопил за две недели 124 вражеских судна, нанес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урон пиратам, убив более 700 из них. В сентябре 1419 г. от губернатора Цусимы было получено обещание не допускать пиратских набегов. Уже значительно позже, в 1443 г., Седжон заключил с Японией договор, разрешив японским купцам торговать в трех корейских портах, что умиротворило япон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2-я группа пожилых сахалинцев отправится на бесплатное лечение в Корею в мае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1-ая групп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го поколения в составе 22 человек 14 января отправилась на бесплат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о программ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ечени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1-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Их сопровождали 16 человек – члены семе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хаживать за старшим поколением.

Вместе с первой группой была приглашена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Она пробыла с группой 4 дня, воочию увидела, как проходил прием сахалинцев, как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Пожилых сахалинцев принимали в Централь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центр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ля удобства палаты для них и

комнаты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расположили на одном этаже. Как подчеркнула Пак, специалисты сработали очень четко, прием был самым радушным. Главный врач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Ан Мен Ок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кажд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пациента. А директ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н Ехан еще раз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они намерены провес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все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го поколения.

- Самое главное, - считает Пак Сун Ок, - удалось договориться, что 2-ю группу сахалинцев в составе 30 человек примут на лечение уже в мае.

Идут переговоры и по 3-ей группе. Сахалинцы хотят, чтобы их приняли в сентябре.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в Корее определяется тяжестью заболевания и ходом лечения (от недели до месяца). Несколько бабушек были прооперированы с диаг-

нозом катаракта глаз.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уже вернулись домой. Одну бабушку ждет серьезная операция в области брюшной полости. Жаль, что именно она поехала без сопровождения члена семьи. Ведь ей больше всего нужен уход со стороны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 связи с этим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заявила, что кажд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1-го поколения будет выезжать на лечение только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члена семьи. Причем, это должны быть прямые родственники, т.е. дети, которые должны ухаживать за св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Еще раз напомним, что согласно программ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1-го поколения обследуются и лечатс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есплатно, им положен также бесплатный проезд, питание и проживание.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их родственники также обеспечиваются бесплатным проживанием, питанием, проездом.

Виктория Бя.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ь» получили в подарок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а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ыла делегац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И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составе 12 человек. Главная цель визита – вручи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ь».

Этот проект возник 4 года назад во время путешествия «киновцев» по районам Сахалина, где они встречались с пожилыми корейцами, узнавали историю их жизни.

И теперь, каждый год в преддверии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ни приезжают на Сахалин, чтобы вручить «лунные» календар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единственном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е» указаны национальные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аздники двух стран –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также народный корейский календарь.

В этом году он иллюстрирован черно-белыми снимками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нашей газеты Ли Е Сика, чей фотоальбом недавно вышел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о время недель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осетила Корсаков, Быков, добралась до Красногорска, Шахтерска,



Бошняково, Углегорска, где встретилась с пожилыми корейцам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айонных отделений РООСК.

На Сахалине делегацию принимал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елегация также посетила редакц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школу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По сообщению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сего было отпечатано 1300 «единственных» календарей, из них 1000 экземпляров была роздана на Сахалине.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окажет «Цветы Мугунхва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В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27 января откроется выставка «Цветы Мугунхва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Ка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узея, экспозиция посвящена истор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островных корейцев. В ней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длинные предметы из фондов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ев. Экспонаты отражают жизненный уклад,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так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документами

и фотографиями из фонд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области.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а 7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границ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иурочена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 одно из мероприятий Дне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музее. До 27 февраля посетители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могут также просмотреть видеофильмы о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ях, обычаях и праздниках,

поиграть в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игры, прослушать лекции.

Программа Дне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 результа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узе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 в 16:00.

Заказать экскурсию и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4242) 72-75-55.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канун праздника Соллаль началось массовое перемещение населения

26 января, накануне выходных дней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граждане РК отправляются в родные места.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скоростных шоссе, в праздничные выходные поток людей, отправляющихся в такие поездки, может достичь 31 млн 15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на 4,5%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28 января в день праздника Соллаль поток составит 7 млн 960 тыс. человек. В праздничный период власти вводя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дорогах страны. В четверг из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выедут примерно 450 тыс. автомобилей, заедут около 360 тыс.

Тхэ Ён Хо: Ким Чон Ын хочет встретиться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он Ын хочет встретиться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в среду в интервью телекомпании CNN бывший советник-посланник посольства СК в Лондоне Тхэ Ён Хо, бежавш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месте с семьёй в РК. По его словам, Ким Чон считает избрание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хорошей возможностью пойти на некий компромисс с новой Вашингто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Бывши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дипломат назвал новогоднее обращение Ким Чон Ына к народу почти явным шантажом в отношении США. В этой связи Тхэ Ён Хо сказал, что предложит Дональду Трампу пересмотреть ранее высказанное им намерение встретиться с Ким Чон Ыном, поскольку эта встреча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а Пхеньяном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легитим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м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США, Японии на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ах встретятся 10 февраля

10 февраля в Вашингтоне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встре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на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ах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К.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вит целью обозначить позиции сторон по тес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ре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учитывая начало работ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Стороны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К по вопросам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им Хон Гюн,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ША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Джозеф Юн и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и Океании МИД Японии Кэндзи Канасуг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ни обсудят проблему возможных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акетных провокаций Севера. Стороны также проведут отдельные дву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В мире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ёт число фанатов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Халлю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о всём мире количество фанато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Халлю достигло отметки 60 млн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25 января. В нём указано, чт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88 странах мира созданы 1.652 фан-клуба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объединяющих 59 млн 390 тыс. человек.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количество фан-клубов выросло на 10,6%, а число их членов - на 68%.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казатель превысил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К. Благодаря успеху телесериала «Наследники солнца» в Китае количество фанатов в Азии и Океании выросло на 53%, составив 40 млн 10 тыс. человек. В Европе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0 млн человек на фоне успеха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инофестивалях, а в США и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е 9 млн, благодаря популя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поп-музыки среди молодёжи.

В РК официально появилась игра Pokemon GO

24 января игра для мобильных устройств Pokemon GO, снижавша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иров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появилась и в Р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риложение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о вторник утром в магазинах Google Play и Apple Store для корейского региона. Речь идёт о мобильной игре, в основе которой заложен принцип совмещения определения местоположения дополненной реальности и многопользовательского ролевого компонента из мультсериала Pokemon. Через шесть месяцев после выхода в 60 странах ее скачали более 500 млн раз. Доход достиг 1 млрд долларов. Игра стала причиной настоящего синдрома. Перед выходом н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ынок разработчики вели переговоры о партнёрстве с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торговыми центрами, пункт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и другими объектами, традиционно привлекающими много людей. Кроме того, в РК прилетел глава компании «Ниантик», разработавшей Pokemon GO, Джон Хэнк. Его цель состояла в улаживании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о сферой игровых услуг. Проблем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арты Google в РК была решена самой компанией на основе собств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пределах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RKI)

Сеул разрешит женской футбольной сборной Южной Кореи поехать в КНДР

Несмотря на напряженные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не намерены препятствовать поездке женской футбольной сборной своей страны в Пхеньян, чтобы провести встречу с командой КНДР в рамках отборочного тура на Кубок Азии.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в столиц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тправится и групп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олельщиков.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из заявления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Женские сборны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оказались в одной отборочной группе, где будут разыграны путевки для попадания в финальную часть на Кубок Азии. Согласно регламенту, встреча в Пхеньяне должна состояться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Помимо сборных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в той группе "В" находятся еще сборные

Узбекистана, Индии и Гонконга.

"Мы являемся страной, которая входит в Федерацию футбола Азии, а потому все вопросы о встрече будут решаться на основе установлен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авил и порядка", - заявил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РК Чон Чжун Х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не будет препятствовать поездке своей сборной в Пхеньян. Ранее были прецеденты, когда в Пхеньяне не удалось провести встречу сборных Юга и Севера по футболу из-за нежелания властей КНДР допустить демонстрацию флаг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международные футбольные власти пригрозили засчитать северянам техническое поражение за нежелание выполнять правила проведения встреч, домашняя для

сборной КНДР игра состоялась в нейтральном поле в китайском Шэньяне. Однако при новом лидере Севера Ким Чен Ыне власти КНДР уже допускали показ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флага в своей стран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чиновник допустил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ь, что в Пхеньян на этот раз также отправится и группа болельщиков-южан. "Если в Федерацию футбола РК поступит заявка от группы наших болельщиков, которые захотят посетить Пхеньян,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нашу команду, то мы рассмотрим и этот запрос", - добавил Чон. Правда, здесь он не стал раздавать авансы, а лишь сказал, что вопрос с поездкой болельщиков "будет решаться, когда наступит время и с учетом складывающейся общей обстановк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Градусник любви к ближнему» достигла цели

Общественна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ранэ ёльме» сообщает, что цель кампании по сбору средств под названием «Градусник любви к ближнему» достигнута.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как и в предыдущие годы, была установлена большая башня в виде градусника, показывавшая сумму собранных пожертвований. Градус на башне превысил отметку в 100 градусов. В течение 65 дней проведения кампании, начавшейся 21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было собрано 359,8 млрд вон или 309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примерно на 860 тыс. долларов больше, чем запланированная сумма. Нынешний показатель является рекордным с 1999 года, когда кампанию провели впервые, и уже на 25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евысил отметку прошлого года. (RKI)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хакеры атаковали сайт крупного оборон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Р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хакеры, возможно совершили атаку на сайт круп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орон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Формат кибератаки - wormhole hacking.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вирус ворует информацию лиц, посещающих сайт. Профильные ведомства ведут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изошедшего. Факт утечки данных посетителей сайта был зафиксирован в начале января. По итогам проверки компьютерной сети предприятия был сделан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вывод о том, что это дело ру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хакеров. Идёт оценка возможной утечки данных. Целью атаки, как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были сотрудники дан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RKI)

В Голливуде снимут ремейк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инофильма «Вопль»

В Голливуде снимут ремейк кинофильма «Вопль»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На Хон Чжин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9 января в компании Fox International Production Korea, которой принадлежит фильм. Снять ремейк предложила британская киностудия Scott Free Production, которая основана в 1995 году братьями Тони и Ридли Скоттами. Известный режиссёр Ридли Скотт - создатель многих прославлен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и фантаст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таких как «Чужой», «Гладиатор», «Марсианин»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Кроме того, киностудия Scott Free Production сняла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ак Чхан Ука Stoker. В этой связи президент компании Fox International Production Korea Ким Хо Сон сказал, что ремейком фильма «Вопль» может заниматься только режиссёр оригинального фильма На Хон Чжин, поскольку фильм носит уникальную гамму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этому сюжет фильма «Вопль» крайне будет тяжело пересказать средствами западной культуры, религии и менталитета. Фильм «Вопль» показали в ма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К, и его с тех пор посмотрели 6 млн 880 тыс. человек. Сюжет фильма касается ужасных событий, происходящих в отдалённой лесной деревне Коксон после появления в ней иноземца. Фильм, в котором отражена корейская шаманская религия и появляются зомби, своими шокирующими поворотами сюжета вызвал сенсацию среди кинозрителей. (KBS World)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Страной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губернатор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Европы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Японии Тосихиро Айк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иветствовал гостя на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 По его мнению, сегодняшняя встреча должна стать продолжением большой работы по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которую начал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Сиздзо Абэ в ходе своих прошлых встреч.

- Нами разработаны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 участию япон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проекта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язанных с рыбопереработкой, марикультурой, 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жилищным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созданием медицинских центров, - сказ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 мн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установление без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префектурой Хоккайдо, расположенной на одноименном острове, ближайшем к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послужило бы хорошим стимулом для налаживания более тес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ласт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ддерживают реше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ообщения, увеличен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ока между пограничными регионами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Тосихиро Айки поблагодарил Олега Кожемяко за большие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рефектурой Хоккайдо. По его словам, недавний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Японию предоставляет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вух стран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Гость высоко оценил потенциал для совместной взаимовыгодной работы, которы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бладает в силу свое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Тосихиро Айки отметил, что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намерена найт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е ограничиваясь такими традиционными отраслями, как энергетика и рыболовство.

Сахалин готовится приня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олимпийскую сборную страны и 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Дети Азии»

В преддверии этих событий, на острове дополнительно к уже имеющимся сооружениям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строят 20 километров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 2 канатные дороги, 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и горные деревни. Помимо спортсменов-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пользоваться ими с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требовал ввести объекты в работу уже в текущем году. Накануне он провел выездное совещание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посетив с ними как уже действующие, так и перспективные строи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под размещение объектов.

Напомним, этой и следующей зимой росси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олимпийцы проведут на острове итоговые сборы к Играм 2018 год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осле чего регион рассчитывает принять детскую Олимпиаду, как еще называю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Дети Азии» - заявк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ично поддерж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о вопросам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Виталий Мутко.

Подготовка к предстоящим событиям вступила в финальную фазу.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увеличить общую протяженность трасс с 30 до 50 километров на главном объекте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юга Сахалина -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этом году новые зоны катания здесь появятся на горе Красной, имеющей высоту около 800 метров и находящейся по соседству с уже обустроенной горой Большевик. Сейчас завершается их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Красная получит 2 канатные дороги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2200 метров («Север») и 1900 метров («Юг») - они уже на стадии заключения контракта, а также систему оснежения склонов (на горе Большевик также увеличат количество снежных ружей и снегогенераторов). У подножия построят горную деревню - комплекс из 20 домиков-шалов, каждый площадью от 130 до 2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комфортом разместиться здесь смогут до 170 человек.

Еще одна подобная деревня расположится в районе базы «Динамо». Ее первая очередь будет включать 22 жилых здания быстровозводимой конструкции - из клееного бруса на бетонном фундаменте.

- После передачи земельного участка в обл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подготовки проектно-сме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с 1 июня планируем развернуть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 прозвучало в докладе губернатору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региона Антона Зайцева.

Он сообщил и о планах по возведению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современной входной группы, организации нового пункта проката горнолыж-

ного инвентаря. В течение предстоящих лет здесь построят и вместительную 6-этажную гостиницу.

К 2018 году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и его окрестностях также появятся 2 новые ледовые арены и спортивный центр для летающих лыжников, более чем на 7 километров увеличится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трасс на лыжном комплексе. На горе Парковой модернизируют канатный подъемник и усовершенствуют трассу для слуп-стайла.

Этой осенью должны быть введены объекты первой очереди сахалинского биатл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свещаемые лыжные и лыжебиатлонные трассы, стадион и стрельбище на 30 установок с мишенями. Стройка развернулась неподалеку от дворца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Несмотря на оживл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лощадке компания-подрядчик допустила отставание от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графика.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аботы, начавшиеся в июне, выполнены всего на треть. Сейчас на площадку завозится недостающий скальник, залиты фундаменты под будущее стрельбище, подготовлены основания для установки опор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освещения лыжных и биатлонных трасс.

- Темпы работ недостаточные, - констатиров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 За февраль наращивайте на площадк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и техники. Если работы не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поставим вопрос о замене подрядчика.

По итогам поездки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руководителям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области подготовить планы конкретных действи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в назначенные сроки ввести в работу все спортивные сооружения.

- Эти вопросы комплексные и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ые, потребуются применение новых инженерных решений, скаже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ереместить в землю небезопасные воздушные линии электропередачи вблизи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 найти источники воды для системы оснежения склонов, обеспечить площадки необходимой инжене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системам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электричеством. При этом обязательное условие - должны соблюдаться все экологические требования. Браться за эту работу необходимо уже зимой: определяться в объем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а, формировать графики, готовить проектно-сметную документацию. Регулярно будем проводить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совещания, чтобы гарантированно ввести объекты в работу к декабрю этого года, - резюмировал глава области.

Новая спортив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олжна в равной степени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как спортсменами-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так и любителями -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и туристами, подчеркнул он.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предлагают обсудить положения нового закона - «О любительском рыболовстве»

Над его проектом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ейчас работает федер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текст документа уже подготовлен и опубликован. На онлайн-площадке zakon.fishing-media.ru организовано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суждение. Рыболовы-любите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граждане и организации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нового закона - присылать свои поправки, высказывать мнение,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боте над законопроектом.

По мнению Игоря Быстрова,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урирующего отрасль, новый закон создает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развития цивилизованного любитель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в стране.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 нас просто не существует единого нормативного акта, который бы регулировал вопросы организации любитель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Полномочия рассредоточены по разным уровням власти.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отдыха населения, не важно какого: рыбу мы ловим, грибы собираем или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пляж - отвечают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у нас есть отраслев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ориентировано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на развитие коммерции в этом виде рыболовства. В предложенном проекте закона гармонизируются действия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ей с возможностями и потребностями населения, - отметил Игорь Быстров.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ладающей большими запасами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ыловить их на удочку или спиннинг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облюдения закона - крайне проблематично. Ловить эту рыбу разрешается лишь на 8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участках (шесть из них находится в реках), выделенных под спортивное и любительское рыболовство, а также еще на 35 таких местах, которые «положены сверху» на участки для промышленного лова.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небольшие отрезки морского побережья шириной 300-400 метров между ставными неводами. В период хода лососевых там стои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етей граждан, взявших путевки на добычу. И у рыбаков со спиннингом или удочкой попросту не ост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ловли, используя аналогичные разрешения.

Полностью отсутствуют участки для любителей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ах, а также на восточном и северном побережьях Сахалина, вблизи круп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 С 2008 года мы очень многое запретили, причем безо всякой логики. Разрешаем масштабный промышленный вылов и на этом фоне - масса запретов для любителей. Взять, к примеру, те же рыбопромысловые участки. Сейчас проводим ревизию их перечня. Если сказать откровенно, то во время хода лосося невозможно четко определить, где промышленник ставит свои сети под видом любитель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а где настоящие рыбаки-любители, и где браконьеры. Это следствие того, что в договорах на большинстве участков для любителей зафиксировано только право на продажу путевк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выданным путевкам не определены,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проекте нового закона при организации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и на ценные виды рыб предлага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именные разовые разрешения (так называемые фиш-карты) и отказаться от рыбопромыслов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любитель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Для населения это снимает многие ненуж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разрешения будет выдавать Росрыболовство, после уплаты госпошлины и ставки сбора за пользование водными биоресурсами. Сетной лов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ретить,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добычи для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лич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Разрешать лов сетями (имеются в виду не только жаберные сети, но и закидные невода и прочие сетные орудия добычи) будет Росрыболовство, на основании реестра, с указанием владельца орудия лова, который будут вест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органы ведомства. Если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закона для граждан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 тот же механизм, что и в охотничьем хозяйстве, то есть получение документа, удостоверяющего право на вылов, скажем, в МФЦ или в лесничестве, системой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граждане не тольк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Данный опыт в области уже успешно опробовали в 2015 году, когда было выдано около 50 тысяч путевок на лосось - «три хвоста» на удочку.

- И людям это понравилось, так как удобно, - отметил Игорь Быстров. -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нашего эксперимента из числа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 туристов высказалось за такой подход.

Рекреацион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 это не только обсуждаемый закон, но и закон «Об аквакультуре», которым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ведение рыбоводства. По мн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опуляц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тайме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сими, кижуча, пресноводных рыб в островных водоемах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хозяйства,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еся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услуг любительского и спортивн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Поправки к федер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 любительском рыболовстве» подготовят в окончательном виде к 1 март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жидается, что указанный законопроект уже в 2017 году будет принят, это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почти 50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лучшились основны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в 2016 году. По оценке,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к январю-декабрю 2015 года увеличился на 6,1 процента и составил 786,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ыросло на 6,9 процента (659,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отчетном году в области отмечал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тепловой и электрической энергии, бензина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азута топочного, лесоматериалов, строительных нерудных материалов, мяса и субпродуктов, рыбных консервов, цельно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колбасных изделий,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Значительно - в 1,2 раза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больше получено яиц - на 5,3 процента и молока - на 2,3 процента. За 12 месяцев в регионе произведено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 общую сумму 12,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что на 11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Выросло поголовье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на 11,1 процента), свиней (на 2,8 процента) и птицы (на 4,7 процента).

Улов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о данным СКТУ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составил 766,1 тысячи тонн, или 106,5 процента к январю-декабрю 2015. Переработано 499 тысяч тонн, или 100,4 процента.

Увеличилась добыча нефти, включая газовый конденсат (на 7,2 процента - до 18,3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газа (на 3,2 процента - до 29,6 миллиарда кубометров) и угля (в 1,3 раза - до 7,2 миллиона тонн).

В сфере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2016 году введено в действие 329,2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Это на 5,5 процента выше аналогич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2015.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в отчетном периоде увеличился оборот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на 2,6 процента).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составил 0,7 процента,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аналогичной дате 2016 года.

(Материалы пресс-цен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그리움에 하나 둘 ... 추억을 빛는다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의 설맞이

"항상 이맘때가 되면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 다같이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

25일 오전 10시.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복지관에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설맞이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행사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어르신들이 식당에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날 복지관은 설행사로 만두를 빚고 강정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직원들은 각양각색의 한복을 입고 사할린에 있는 자녀들을 대신해 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렸다. "만두를 보니 사할린에서 보낸 명절이 떠오르네. 동네 사람들하고 시끌벅적하게 명절을 지냈는데 ... 다들 어디서 잘 살고 있는 건지 문득 보고 싶구려."

복지관에 들어온 지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었다는 이춘재(85) 할머니는 작은 손으로 야무지게 만두를 빚으며 사할린을 추억했다. 이 할머니는 내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왔다.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녀를 두고 홀로 한국에 왔다. 종종 사할린을 방문해 자녀들을 만나지만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욱 그리다.

경상북도 출신인 장기훈(80) 할아버지는 다섯 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사할린으로 갔다. 탄광일을 하며 부인을 만나 결혼하고 딸 둘을 낳았다. 일본인 밑에서 일해야 하는 사할린 생활이 녹록치 않아 2008년 한국으로 왔다.

"사할린에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명절을 꼭 챙기셨어. 명절 음식도 차리고 제사도 지냈는데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제대로 명절을 챙긴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오늘따라 포항에 있었던 작은 집이 그리워." 장 할아버지는 땅콩과 아몬드가 들어간 강정을 둥글게 만들어 옆에 계신 동료 할머니에게 권했다.

지난해 12월 복지관에 들어왔다는 이나



가사리(83) 할아버지는 사할린에 있는 동포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러시아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는 본인을 편하게 이가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가족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외로운 마음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사할린에서 같이 지내던 동포들이 생각나 슬프네요. 같이 울걸 그랬어."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는 총 90명의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다.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명절. 그러나 먼 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사할린 동포들에게는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는 날이다.

(인천일보)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16

아주 재미있는 수필을 읽어 볼 겁니다

(전호의 계속)

1. 수필의 작가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2.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3. 작가는 어떤 집에서 살았습니까?
4. 작가는 왜 그 집을 좋아합니까?
5.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생활'을 읽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과제학습

1. '-(으)느/는가 만큼, -인 만큼, -(으)니 만큼', '-(으)르 나위가 없다', '-(으)르 듯 말듯', '-(으)르 따름이다', '-(으)르 리 만무하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두 개씩 만드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나의 사랑하는 생활'을 읽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생활에 대해서 수필을 써 보십시오.

Урок 17

한국의 전래 동화가 재미있어요

대화

선생님: 여러분, 대학에서 전래 동화를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사: 제 생각에 한국의 전래 동화는 재미있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적인 특징도 발견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냐: 저도 동화를 재미있게 읽곤 합니다. 전래 동화 속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꼭 선이 악을 이기지요. 그래서 전래 동화를 읽으면 교훈과 함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올가: 저도 전래 동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전래 동화를 읽어 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 전래 동화를 다른 나라의 전래 동화들과 비교해도 좋겠습니다. 그 속에 어떤 공통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의 독특한 가치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래 동화의 문화적 배경을 분석해 보아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마: 사실 저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재미로 전래 동화를 읽어 왔습니다. 앞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한국의 전래 동화를 분석해서 졸업 논문을 쓸 수도 있겠네요. 안 그래도 졸업 논문을 어떤 주제로 쓸까 고민 중이었는데…….

선생님: 네, 지마는 한국의 전래 동화와 관련된 주제로 졸업논문을 쓸 셈이군요. 좋은 생각입니다. 전래 동화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유치원생이나 대학생이나 모두 읽을 수 있는 책이지요. 단지 각각 자신의 수준에 맞게 읽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읽을 수 있게 읽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언어, 문학적인 면을 살펴 보고자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면 좋은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전래 동화를 읽은 후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단어

전래 (의) - наследственный, переходящий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동화-сказки; 사상-идея; 특징-особенность, специфика; 초월-превосходство; 발견-открытие, обнаружение; 독특하다-специфический, своеобразный; 단지-только; 해석-толкование, интерпретация; 살펴보다-рассматривать4 유익하다-полезный.

문법 문법

Лингвистика. Синтаксис.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форматы конца предложения.

문장의 종결 표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Для восприятия полного смысла корейск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его необходимо выслушать (прочитать) до конца. Сами корейцы говорят о своем языке: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 보아야 한다.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орейское предложение устроен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самые основные семантически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 значимые форматы находятся именно в конце предложения.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제 52 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공고

1. 목적

- 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 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2. 대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3. 일시 : 2017. 4. 16(일) 09:30~16:00

가. TOPIK I : 오전 / TOPIK II : 오후

나. 입실시간 : 매 교시 20분 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 (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2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TOPIK II	1교시	듣기 읽기	15:00	15:10	16:20	70

4. 장소 및 시행처: 사할린한국 한국교육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시 : 2016. 1.15 ~ 2016. 1.31

나. 장소 :

교 부 장 소	주 소	전 화
사할린한국교육원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	505696

6. 응시 수수료: 300루블

7. 시험결과 발표: 2016. 6.16 이후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사할린 건강캠프 지원은 인터넷을 통해

사할린주는 2월 1일부터 만 7세부터 16세까지를 위한 사할린주 내 야외 건강캠프 지원신청과 입소권 발급을 시작한다. 처음으로 섬지역 주민들은 <유빌레이너>, <레스노예 오제로>와 <차이카> 캠프 입소 지원을 사할린주교육부 홈페이지의 <2017 여름휴식> 부문에서 전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캠프 입소권은 시기별로 나뉘어 발급된다. 2월 1일에 사할린주민들은 봄방학 때 <레스노예 오제로> 캠프 입소권만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3월 1일에는 <차이카>의 전 교대에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3월 15일에는 학부모들이 <유빌레이너> 캠프 입소를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전 접수 상황과 실시간 문의전화는 이와 관련된 교육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현재 3가지 건강캠프는 학생들을 위해 2490개의 입소권을 준비해 두었다.

작년과 같이 저소득층과 불우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입소권을 제공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휴식을 위한 비용을 학부모들이 입소권 가격의 15% 부담하게 된다. 이리하여 <레스노예 오제로> 캠프 입소권 구입은 7875루블리, <차이카> 캠프 입소권 구입은 6567,75루블리, <유빌레이너> 캠프 입소권 구입은 6013,35루블리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섬지역 야외 외에 사할린 학생들은 3개의 전국 아동센터 <오케안>, <올료노크>와 <스메나>, 국제 야영 <아르테크>에서도 휴식할 수 있다. 또한 약 500명의 학생은 크림 공화국과 세워스토폴에 있는 건강 휴양기관들로 떠난다. 이 캠프로 떠나는 학생들은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각종 경기나 대회에서 우승기록이 있는 학생들이다.

Запись в сахалинские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лагеря будет вестись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Заявочная кампания на получение путевки в загородные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лагер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7 до 16 лет стартует 1 февраля. Впервые островитяне с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в "Юбилейный", "Лесное озеро" и "Чайку" с помощью электронной системы, запущенной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в разделе "Летний отдых — 2017".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путевку в лагеря будет разделена по времени. 1 февраля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оформить документы только на посещение "Лесного озера" во время весенних каникул. 1 марта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все смены в "Чайке", а 15 марта родители смогут зарезервировать ребенку место в "Юбилейном". Полный график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и телефоны горячих линий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разделе [сайта ведомств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три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лагеря подготовили 2490 путевок для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Как и в предыдущие годы дети, находящие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получают путевки бесплатно. Отдых остальных ребят обойдется их родителям в размере 15% от стоимости оздоровления в лагеря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 посещение "Лесного озера" необходимо выделить из семейного бюджета 7875 рублей, "Чайки" — 6567,75 рубля, "Юбилейного" — 6013,35 рубля.

Помимо поездок в островные лагеря юные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и тр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детских центра — "Океан", "Орленок" и "Смену", и оди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 "Артек". Еще порядка 500 ребят отправятся в учреждения отдыха и оздоровления, расположенные в Республике Крым и в Севастополе. Направление детей в эти мест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только за какие-либо достижения: отличная учеба, победа в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так далее.

사할린주향토박물관 닙호공예장인 마스터 클래스에 초대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측은 1월 27일 15시에 <사할린 소수민족 민속예술: 보전과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울가 사지노와 닙호 공예 장인을 마스터클래스에 초청한다. 마스터클래스는 사할린주 북방 소수민족 사회복지개발협력기획 재단에 보조지원기획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다고 박물관 측이 알렸다.

울가 사지노와는 기본 닙호의 수예, 닙호 전통 의상 재봉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риглашает на мастер-класс нивхской мастерицы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27 января в 15.00 приглашает на мастер-класс нивхской мастерицы Ольги Садиновой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Народные промыслы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мках грантового проекта фонда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плана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музей.

Ольга Садинова познакомит с основами нивхской вышивки, декорированием и пошивом традиционных нивхских костюмов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사할린한국교육원 직원 채용 공고

사할린한국교육원은 현지채용 직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희망자는 한국교육원으로 연락바랍니다.

= 아래 =

- 모집 직종 : 사무원
 - 통번역
 - 각종 행정업무
- 지원자격
 - 가. 2017년 1월 1일 기준 만50세 미만 (1967.1.1 이후 출생자) 나. 러시아 국적자
 - 다. 한국어 통번역 가능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자 우대 라. 컴퓨터활용능력 보유자 우대 :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 마. 사할린한인동포 사회에 기여자 우대
- 채용기간 : 2017.3.1 ~ 12.31 (10개월)
 - ※ 매년 재계약 가능
- 선발절차
 -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 공통: 이력서(교육원 제공 양식), 여권사본
 - 우대서류: 한국어능력시험 인증서
 - 컴퓨터능력활용 자격증(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 서류제출 기간 : 1.23 ~ 2.10
 - 제출방법 : 한국교육원 방문 접수
 - 나.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3배수 면접 ※ 2.13 면접 대
- 상자 통보
 - 면접일 : 2.22 10:00 한국교육원
 - 최종발표 : 2.23
- 문의처 : 사할린 한국교육원
 - 주소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미라거리 83-A
 - 전화 : 505696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5-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